

“중·일과 관광산업 전쟁 K스마일 친절함이 무기”

정창수 관광공사 사장, 캠페인 확대 앞장

“K스마일 캠페인은 한·중·일 아시아 3국 관광산업 경쟁의 필승카드.”

2016년부터 시작하는 ‘한국방문의 해’를 앞두고 정창수(사진) 한국관광공사 사장이 K스마일 캠페인을 전국 광역지자체로 확대,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창수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11일 제주 동문전통시장에서 K스마일 홍보활동을 펼친 뒤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그동안 서울에 집중했던 K스마일 캠페인을 내년부터는 지방으로 무대를 넓히겠다는 계획을 소개했다. 외래관광객 확대 캠페인 K스마일은 2016~2018 한국방문의 해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한국이 웃으면 세계가 웃어요’라는 슬로건 아래 국민 환대의식 제고와 친절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위한 운동이다

정창수 사장은 “그동안 K스마일 캠페인 홍보는 청계천, 경복궁, 인사동 등 서울 중심으로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오늘 행사가 열린 제주를 비롯해 광주광역시, 전남 및 강원도 등에서 광역지자체장이 참석하는 캠페인을 잇달아 진행할 것”이라며 “각 시도가 캠페인의 주역이 되고 관광공사와 한국방문위원회는 돕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 사장은 K스마일 캠페인이 이웃인 중국, 일본과의 경쟁이 불가피한 관광산업에서 관광객을 이끌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했다. 정 사장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어 2020년 일본 도쿄, 2022년 중국 베이징에서 잇따라 올림픽이 열린다”며 “아시아 3국으로 전세계 사람들이 오는 이때, 친절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지 않는다면 관광객을 이웃에 뺏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세계적 관광대국인 프랑스는 1960, 70년대부터 범국가적 친절 캠페인을 펼쳤고 일본도 이미 친절문화가 정착됐다”며 “전세계적으로 다른 산업은 성장의 한계를 보이지만 관광은 이제부터 시작이어서 친절은 어떤 인프라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제주 | 김재범 전문기자 oldfield@donga.com



겨울이 아니면 즐길 수 없는 낭만. 난방비와 두꺼운 옷감이 들지만 겨울이 있어서 좋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해주는 스키의 시즌이 돌아왔다. 새하얀 설원에서 청량한 공기를 들이 마시고 입김을 내뿜으며 즐기는 겨울철 최고의 레포츠 스키와 만남 시간이다. 스키와 낭만 그리고 즐거움으로 가득 찬 스키리조트가 일제 개장했다. 진정한 겨울이 시작됐다. 올해 기방 시설과 서비스, 안전성 등 모든 면에서 더욱 업그레이드된 수도권-강원권 스키리조트의 달라진 모습을 살펴봤다.

눈덮인 슬로프 끝엔 잠 못드는 활강의 밤

》》 새단장 마친 수도권 강원권 스키리조트 일제히 개장

●**비발디파크**=무려 8년 연속으로 입장객 순위 1위를 차지했다. 초심자부터 최상급까지 즐길 수 있는 13건의 슬로프를 갖췄다. 올해는 개장 이후 처음으로 새벽 스키(오전 5시까지)를 도입해 '잠 못드는 밤'을 선사한다. 매년 코스를 추가한 무료 셔틀버스도 올해 더욱 확대했다. 기존 서울 강남북을 비롯해 일산, 분당, 수원 등 74개 지역 무료 셔틀버스 노선에 오전 3시에 서울로 올라가는 상행선을 추가해 스키장 출퇴근이 가능해졌다. 전철역(중앙선 오반-용문)에도 셔틀버스를 추가해 대중교통 스키여행이 가능해졌다. (하루 전날 온라인 예약).

●**렌탈 시즌권**=도 눈길을 끈다. 따로 구입할 필요없이 최신형 장비를 시즌 내내 제 것처럼 빌릴 수 있다. 스마트폰 렌탈 서비스도 도입해 절차가 간편해졌다.

●**휘닉스파크**=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주무대에서 즐길 수 있는 휘닉은 스키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어린이 전용 슬로프를 만들었다. 축구장 크기의 전용강습장에 리프트 대신 안전한 무빙워크를 이용해 강습, 스키와 전해질 수 있다. 강습 기간에는 식사와 간식까지 전문 강사가 직접 챙기기 때문에 부모들은 안심하고 오랜만에 들만의 스키를 즐길 수 있다. 초보 스키어나 노약자들도 걱정 없이 스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스키장 도우미 PP엔지니어가 나서서 도와준다.

●**시즌권자를 위해 무료 셔틀버스 노선**을 전국 13개 도시에 운영한다. 이를 이용하면 서울에서 출발해 휘닉에서 스키를 즐긴 후 부산이나 대구로 편안하게 여행을 갈 수도 있다.

●**엘리시안강촌**=올시즌 초·중급 스키어들에게 최적화된 스키장으로 변신을 꾀했다. 이를 위해 과감히 슬로프에 손을 댔다. 중상급 슬로프의 경사도를 종전 24도에서 18도로 다소 낮췄다. 5도의 중급코스는 9도로 높여 초·중급 스키어들이 모든 슬로프에서 재미있게 탈 수 있도록 했다. 짐을 들거나 스키 착용 등 곤란한 일을 겪을 때 '빨간모자'만 찾으면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헬퍼 시스템도 운영한다.

●**기존 전철과 ITX청춘열차에 무료 셔틀버스도** 늘렸다. 지난해 시즌 17개 노선(99개 정류소)을 올 시즌 21개 노선(129개 정류소)로 확대했으며 사전 예약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주말(금-일요일) 심야스키를 새벽스키(오전 5시까지)로 확대했다. 키즈 스카이가티미도 운영한다. 알파인 스키 국가대표 출신 강박연 코치가 직접 지도한다.

●**서브웨이 곤지암리조트**=올시즌 '3대가 즐기는 스키장'을 선언했다. 국내 스키 1세대인 할아버지, 부모, 자녀가 모두 스키를 즐길 수 있도록 세대별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우선 미래의 스키고객인 유아를 위해 곤지암 어린이 스키교실을 확대 운영한다. 방학 기간 부모가 직접 스키장까지 데려가지 않아도 안심하고 스키를 가르칠 수 있는 어린이 전용 강습 프로그램(기간 2~4일)으로 전 스키 국가대표 선수 출신인 최문성 교장이 운영한다. 온라인 신청.

●**성장년 층을** 위해선 경제적인 지원이 따른다. 원하는 만큼 스키를 즐길 수 있는 시간총량제 리프트권 '미타일패스'를 직장인과 학생에게 우대 할인해준다. 주중 심야스키(오후 10~오전 4시까지)는 3~6시간권을 15% 할인해주고, 주말 오전 7~10시간권은 25%를 각각 할인해 준다. 또한 스키 1세대 장년 층을 위해 '스키클럽 곤지암'을 창설했다. 국내 첫 스키 율리픽 국가대표 임경선 선생도 참가한다. '스키클럽 곤지암' 회원들은 안전 순찰과 어린이를 위한 기술교육 등 봉사활동도 펼친다. 이와 함께 강사가 슬로프를 순회하면서 무료 원포인트 강습을 해주는 '슬로프V맨' 서비스도 새로 선보인다.

●**하이원스키장**=올시즌 역시 '안전한 스키문화'를 테마로 내세웠다. 벨라-마운틴 봄에 의무실을 운영하고 닥터헬기 이송체계 구축 등 고령층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다른 수도권 근교 스키장과는 달리 심야스키를 없앴다. 야간개장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한다. 서비스를 전면 업그레이드했다. 리조트 전 지역에서 와이파이가 이용할 수 있으며, 객실에 삼겹살 등 음식냄새가 배지 않도록 마운틴 펀도 일부를 '클린 객실'로 운영한다.

**비발디파크 오전 5시까지 새벽스키
휘닉 어린이 전용 무빙워크 강습
초·중급용 경사도 낮춘 엘리시안강촌
곤지암 시간총량제 리프트권 할인 혜택
하이원 닥터헬기 이송체계 구축
오크밸리 겨울밤 스노파티 마련**

●**오크밸리**=즐거는 스키여행'을 무기로 삼았다. 우선 스키 부문에선 상급자들을 위한 편파와 퍼니런 공간을 조성했다. 모굴, 점프대, 윌 라이딩 등 시설로 상급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킨다. 초보자들에게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했다. 초급 슬로프의 길이와 폭을 확대(길이 620m 최대 폭 120m) 경사도를 5도로 조절했다. 무빙워크 시스템을 갖춘 안전 리프트를 도입했다.

●**오크밸리 스키 스쿨(9세 이하 어린이)**은 '도어투도어(Door to Door)' 서비스를 도입해 객실을 직접 방문해서 데려와 장비 렌탈과 강습, 점심식사, 라운지 이용까지 모든 과정을 책임지는 원데이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사 모바일 앱을 통해 객실과 골프, 스키 등 주요 시설을 단번에 예약할 수 있도록 해 편의성을 높였다. 주변 관광지 및 맛집, 리조트 내 식음-부대시설에 관한 자세한 정보와 설명까지 곁들였다.

●**여기다 나이트라이프의 즐거움도** 더했다. 와리거리 커피와 공동으로 이달 12, 31일, 1월 16, 29일 '와리거리 G.R 스노 파티'를 연다. 국내 최정상급 클럽 DJ와 인기 아이돌 가수, 개그맨, 레이싱모델 등이 총출동하는 파티는 겨울 밤의 낭만을 선사한다. 입장권은 2만원이며 스키와 함께 즐기는 리프트권(3만9000원)도 판매한다. 문의 및 예매 와리거리 홈페이지(www.waligali.com).

●**세계적으로 인기 높은 대한민국 스키**=한국관광공사와 관광협회중 양회는 스키 저변확대를 위해 이달 22~2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겨울여행축제(K-Winter Festival)'를 연다. 행사에는 전국 스키장과 리조트가 함께 나서 겨울여행상품 프로모션을 펼친다. 관광공사는 또 '대한민국 구석구석' 여행정보 웹사이트(korean.visitkorea.or.kr)에 국내 주요 스키장을 소개하는 등 겨울여행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경주, 국제불상 컨퍼런스 개최 “문화 콘텐츠 발굴해 관광사업 연계”

경주시는 ‘2015 경주 국제불상 컨퍼런스’가 지난 10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사장 임상규)에서 관련 학계·연구기관·종교단체 관계자 및 일반인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최양식 경주시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환영사(이계영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 주제발표(문명대 한국미술사연구소장, 최성은 덕성여대 박물관장), 사례발표(이혜련 경희대 컨벤션전시경영학과 교수)와 테이블토크로 진행됐다.

이 행사는 신라 천년고도의 대표적 문화유산 중 하나인 ‘불상’이라는 콘텐츠를 활용해 경주지역에 특화된 지역특화컨벤션사업으로 개발하기 위해 열렸다.

경북도, 경주시, 동국대학교 및 경주화백컨벤션센터가 주최·주관하고 한국관광공사와 (재)중도가 후원 개최됐다.

특히 이번 컨퍼런스에는 지역특화컨벤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관광공사도 참여했다.

이날 한국관광공사 관계자는 “경주만의 색깔을 낼 수 있는 경주국제 불상 컨퍼런스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향후 관광 사업으로 발전하길 바란다”며 응원했다.

한편 경주는 앞으로 경주의 ‘불상’ 등 역사 문화 콘텐츠를 발굴, 육성해 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향후 컨퍼런스와 연계한 문화관광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경주=장경국 기자

비스트·방탄소년단 뜨자 함성... 야광봉 든 해외팬 7000명 탄성

본사·서울시 주최 '슈퍼 콘서트'

히트곡 4~5곡씩 옴니버스식 공연 온라인 티켓 교부로 해외팬 몰려 중화권팬 70%... 美·佛서도 찾아 "주춤했던 관광 활성화 도움될 듯"

지난 12일 밤 '2015 슈퍼 서울 콘서트 인 스카이돔'이 열린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의 실내와 실외 온도는 확실히 달랐다. 목도리를 동여매야 할 정도로 쌀쌀한 겨울 날씨를 보인 이날 국내 최초의 실내 야구장인 고척돔 안은 케이팝 팬들의 열기로 후끈했다.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서울신문과 서울시가 공동 주최한 이번 콘서트는 무료입장인 데다 비스트, 방탄소년단, 블락비 등 한류를 주도하는 정상급 인기 아이돌 그룹이 대거 출연해 행사 전부터 관심이 높았다. 고척돔의 객석 수용 인원은 2만 5000명으로, 문화행사에는 보통 2만석 정도를 개방한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사각석(시야방해석)을 최대한 줄이고 한류 스타들의 모습을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특별 일부러 1만 5000여석만 개방했다.

한정된 자리를 미리 확보하려는 열성팬 3000여명은 콘서트 전날부터 고척돔 앞에 줄을 섰다. 공항에서 여행 가방을 들고 공연장으로 직행한 열혈 해외팬도 상당수 눈에 띄었다. 온라인 티켓 교부로 해외에서도 수월하게 콘서트 티켓을 손에 쥘 수 있게 한 점은 해외 관객을 끌어들이는 데 한몫했다. 서울신문과 한국관광공사 집계 따르면 이날 콘서트에 온 해외 관객은 7000여명에 달한다. 중국, 대만,



지난 12일 저녁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15 슈퍼 서울 콘서트 인 스카이돔'에서 '떠오르는 한류' 방탄소년단이 초겨울 추위를 뚫고 온집한 1만 5000여 케이팝 팬들 앞에 두고 화려한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seoul.co.kr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다양한 국적의 관객 가운데 70%가 중화권에서 몰려온 케이팝 팬들이었다.

투아이즈, 멜로디데이, 노지훈, 로미오 등 신인 가수들이 꾸민 1부부터 관객들은 박수와 함성으로 고척돔을 달구기 시작했다. 주요 가수들이 등장한 2부가 되자 팬들은 야광봉을 흔들며 공연장이 떠나갈 듯한 환호성을 질렀다. 최근 신곡 '런'에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인 '빌보드 200'에 진입시킨 방탄소년단은 '떠오르는 케이팝 주자답게 힘과 절도가 있는 군무로 2부 무대를 열었다. 실력과 아이돌 그룹 블랙비는 화려하고 신나는 노래와 퍼포

먼스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케이팝 4대 천왕'으로 꼽히며 중국, 일본, 호주 등 해외 활동에 주력했던 비스트는 열정적인 무대로 오랜만에 국내에서 만난 관객들의 호응에 답했다.

평소 단독 콘서트만 열던 이들이 히트곡을 4~5곡씩 부르는 옴니버스식 공연을 하자 케이팝 팬들도 반색했다. 왕아영(26·홍콩)은 "여러 가수의 공연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데다 문화 차이를 느낄 수 없는 시간이라 좋았다"며 흥분감을 드러냈다. 켈시(27·미국)는 "케이팝의 신나는 춤과 감성적인 가사에 매료됐다. 가수들이 외국어에 능통해 팬서비스도 뛰

어나다"고 즐거운 표정으로 말했다.

이날 콘서트에는 김영만 서울신문 사장과 이인영(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이성 구로구청장, 김의승 서울시 관광체육국장, 문영주(서대문)·김구현(성북) 서울시의원 등이 참석해 케이팝 현장의 열기에 동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콘서트는 젊고 에너지 넘치는 서울의 이미지와 케이팝이라는 한류 콘텐츠의 시너지를 위해 추진됐다"면서 "서울의 마케팅 효과와 더불어 상반기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로 인해 주춤했던 해외 관광객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주 기자 ein@seoul.co.kr



한국관광공사 제공

전주 하면 비빔밥, 비빔밥 하면 전주다. 전주비빔밥은 사골 국물로 고슬고슬 지은 밥에 오색 나물 곁들이고, 치자 물 들인 황포묵, 맵시 있게 부친 황백 지단, 밤 은행 대추 호두 잣 같은 오실과를 곁들여 먹어 낸다. 눈으로 먼저 맛보고, 입으로 먹는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늦그릇에 담아낸다.

파워시티 NOW

<18> 한식의 맛·한옥의 멋 숨 쉬는 '문화 특별시' 전주

전북 전주(全州)는 맛과 멋의 고장이다. 예향(藝鄕) 전주의 구성진 소리와 춤사위는 한국인의 흥을 녹여낸다. 울긋불긋 온갖 나물과 황포묵이 올라간 비빔밥, '한상 떡벌어 지게 차려냈다'는 말이 저절로 떠오르는 한정식은 전주의 트레이드마크다.

전주는 요즘 '가장 한국적인 도시'로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고 있다. 루이 14세의 베르사유 궁전이 있는 프랑스 파리 근교 베르사유와 부르고뉴 와인의 본거지 디종이 최근 나란히 자매결연하자고 제안해 왔다. 올해 전주를 찾은 외국의 장관·대사, 유명 예술인만 200명을 헤아린다. 이 중 모로코 문화부장관 일행은 지난 10월 4박 5일간 머물며 전주의 맛과 멋에 흠뻑 빠졌다. FIFA(국제축구연맹)는 2017년 U-20 월드컵 개막전을 전주에서 치른다.

◇ '문화특별시' 전주를 찾은 외국 손님과 국내 관광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장소는 풍남동 한옥마을이다. 경기전 앞을 지나는 태조(이성계)로를 중심으로 한옥 600여 채가 다소곳하게 내려앉았다. 슬러화하던 구도심 지역은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생기를 되찾고 있다. 2001년 50곳에 불과하던 한옥마을 상가는 올해 506곳으로 10배가 됐다. 민박집 등 숙박업소가 159곳에 이른다. 주말이면 방문객이 밀려들어 인산인해를 이룬다.

다. 연간 방문객 600만명 돌파가 눈앞이다.

이미 세계적 명소가 된 한옥마을 에다 전주의 소리와 춤, 술과 음식, 한지, 전통 가구, 옷칠, 우산 단청, 바느질 같은 문화 자산(資産)이 스토리를 덧씌운다. 전주는 '문화 부자(富者) 도시'다. 전주에는 정부와 전북도가 지정한 무형문화재 보유자만 40명이 있다. 이들이 솜씨를 뽐내고, 가르치며, 산업화할 공간이 지난해 한옥마을 곁에 문을 열었다. 국립무형유산원(서학동)과 한국전통문화전당(경원동)이다. 한옥마을에선 방문객들이 공연도 감상하고 직접 체험도 할 수 있다.

지난 7월엔 조선시대 호남과 제주까지 관할하던 전라 감영 복원 작업이 시작됐다. 2017년까지 관찰사 집무실인 선화당 등 주요 건물 여섯 동(棟)이 옛 모습을 되찾는다. 쇠락해가던 구도심에서 또 다른 명물로 떠오른 게 남부시장이다. 남부시장에선 작년 10월 말부터 금요일과 토요일 밤이면 시장 중앙 통로에 이동 판매대 등 70여 점포가 문을 연다. 전주의 넉넉한 인심을 느낄 수 있는 야(夜)시장이다. 야시장이 서면서 남부시장을 찾는 손님은 하루 최대 1만명으로 늘어났다.

전주는 이제 '호남제일문'인 풍남문과 한옥마을, 전라 감영(중앙동)에다 전통시장의 넉넉한 인심까지 있어 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 쉬는 가장 한국다운 도시, '문화특별

시'를 꿈꾼다. ◇ '한식(韓食) 수도' 전주는 2012년 '유네스코 음식창의 도시'로 지정된 한식의 본고장이다. 비빔밥과 한정식, 콩나물국밥만 있는 게 아니다. 푸짐한 안주를 곁들인 막걸리와 모주도 미식가와 애주가들을 불러 모은다. 황태·감오징어·달걀부침 등 맛갈스러

유네스코 지정 '한식 도시' 내년부터 '푸드 프로젝트' 전북 먹거리, 전국 제곱

한옥마을, 年600만 방문 내부 상가도 10배 늘어 구도심 夜시장도 불야성

"매력 넘치는 품격 도시" 소리·한지·춤·악기 등 무형문화재 보유자 40명

운 안주를 뽐내며 즐길 수 있는 가맥집(가게 맥주집)은 이미 전국적 유명세를 치르고 있다. 지난 8월 첫 '전주가맥축제'가 열리기도 했다. 전주는 지난 10월 송천동에 시범 직매장을 내면서 '전주 푸드 프로젝트'에 돌입했다. 고창·무주·부안·완주·임실·장수·진안 등 전북 일급 군(郡)의 특산물과 먹거리



9월 한복을 차려입고 전주 한옥마을을 찾은 방문객들이 한옥 뒷마루에 앉아 있다.

전주 한옥마을		주요 축제	
면적	29만8260㎡	전주대시습놀이전국대회	판소리와 농악 기악 등 명인·명장을 뽑는 대회
건물	776동 (한옥 605동, 비한옥 171동)	전주한지문화축제	전주 한지를 신산업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행사
인구	1322명 (653가구)	전주세계소리축제	한국 전통음악을 알리고, 월드 뮤직을 불러들이는 축제
방문객	519만명 (올 1~10월)	전주비빔밥축제	전주시민들이 동네마다 비빔밥을 비벼 나눠 먹는 행사

자료:전주시

리를 전주 시민 밤상에 올린다는 것으로, 로컬(local) 푸드의 유통망을 광역화하는 작업이다. 고창 북분자, 무주 머루·천마, 임실 치즈, 장수 사과, 부안의 풍부한 수산물이 전주의 정갈한 음식 솜씨와 어우러지게 한다는 것이다. 전주시는 이를 통해 농가와 소비자가 상생(相生)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하고, '한식 수도'로 비상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가 개발과 성장 경쟁에서는 뒤처졌을지 몰라도, 다른 어느 도시도 흉내 낼 수 없는 고유한 맛과 문화 자산을 풍부하다"며 "매력이 철철 넘치는 품격 높은 도시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김창곤 기자

국민 절반 “올해 가을 국내 여행”

문체부 조사... 경비로 2조 5000억 지출

지난가을 실시된 '2015 가을 관광주간'에 전 국민의 48.3%가 여행을 떠나 2조 5000억원이 넘는 소비지출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펴낸 '2015 가을 관광주간 국민참여 실태조사'에 따르면 10월 19일~11월 1일 진행된 가을 관광주간에 1987만명이 국내 여행을 떠났다. 이는 올해 초 진행된 봄철 관광주간 대비 14.7%, 지난해 가을과 비교해선 35.6%나 증가한 수치다. 또 이 기간 여행객들의 소비지출액은 2조 5521억원으로 올봄보다 7.7%, 지난해 가을 대비 20.1% 증가했다.

평균 여행 기간은 2.7일이었다. 숙박 일정은 1박2일(45.6%)이 가장 많았고 2박3일(40.4%)이 뒤를 이었다. 지난봄 관광주간에 비해 1박2일 응답은 6.5% 감소한 반면 2박3일 여행객은 11.4%나 늘었다. 3박4일 여행객도 11.7%나 됐다. 여름휴가철이 아닌데도 2박 이상 여행을 떠나는 이들이 점차 늘고 있다는 방증이다. 4박5일 이상 응답자는 2.3%였다. 만족도도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다. 지난해 가을 관광주간의 만족도는 3.90(5.00 만점 기준)에 그쳤지만 올해 봄 4.17에 이어 이번엔 4.2를 기록했다.

하지만 관광주간에 대한 국민 인지도와 할인혜택 경험 비율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관광주간을 모르고 여행했다고 응답한 이들은 69.3%에 달한 반면 관광주간에 제공되는 할인혜택을 경험한 이들은 21.7%에 머물렀다. 참가 횟수도 봄 관광주간에 견줘 국내여행 1회는 9.6% 증가했지만 2회 참가 응답은 되레 6.3% 감소했다. 한 번은 가도 두 번은 찾지 않는 이들이 늘었다는 뜻이다. 관광업계 안팎에서 관광주간 프로그램을 좀더 정교하게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아울러 여전히 폐쇄적인 직장의 휴가문화, 취학 자녀와의 휴가 불일치 등이 서둘러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번 실태조사는 15세 이상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11월 초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손원천 기자 angler@seoul.co.kr

한국경제

2015년 12월 14일 월요일 T09면 기획
12.2 x 8.1 cm

서울, 세계 최고의 MICE 도시로 '우뚝'

美 비즈니스 트래블러 선정

서울이 최고의 MICE(기업회의·포상 관광·국제회의·전시회) 도시로 선정됐다. 미국의 비즈니스여행 전문매체인 글로벌트래블러는 세계 독자 20만명을 대상으로 벌인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서울을 '올해의 최고 MICE 도시(Best MICE City)'로 지난 8일 선정했다.

서울이 최고의 MICE 도시에 선정된 것은 2013년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서

울은 지난해 국제협회연합(UIA) 기준 310건의 국제회의를 열어 싱가포르를 제쳤다. 서울은 미국 비즈니스트래블러가 발표한 '최고의 국제 비즈니스 미팅 목적지'에도 2012년부터 4년 연속 선정돼 겹경사를 맞았다.

김의승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서울에서 열리는 각종 국제 MICE 행사 참가자의 만족도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확충과 새로운 비즈니스 관광상품 개발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선우기자 seonwoo_lee@hankyung.com

16~17일 국제 콘퍼런스 'GHF 2015' 개최

의료기관의 중국 진출, 중점적으로 모색

한국 의료의 해외 진출 전략과 사례를 공유하는 정부 차원의 국제 콘퍼런스가 열린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이달 16~17일 서울대리뷰시티에서 '글로벌 헬스케어 프런티어 2015(GHF2015·Global Healthcare Frontier 2015)'를 개최한다. 이 콘퍼런스는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중앙일보미디어플러스가 공동 주관한다.

올해 3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한국 의료 해외 진출의 대약진을 위한 진출 기반 강화 전략'을 주제로 총 4개 섹션으로 구성됐다. 특히 중국시장 진출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그간 중국시장 진출에 있어 가장 문제가 됐던 법·제도 문제와 금융·인력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해 집중 모색한다. 이를 위해

중국 저장성·후난성·칭다오시에서 보건정책 핵심 관계자를 초청했다. 이와 함께 중국 진출에 성공한 한국 의료기관의 사례를 통해 중국의 거대자본을 유치한 비결에 대해 듣는다.

첫째 날 진행되는 제1세션에서는 저장성 위생계획생육위원회 장젠홍 부주임과 후난성 건강서비스산업협회 정카이성 국제교류센터장, 칭다오 국제경제협력구 경제발전국 관웨이 부국장이 '중국의 의료수출 기회와 전략적 진출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이어 제2세션에선 홍콩 Fongs 법률사무소의 레이먼드 루 변호사가 '홍콩의 해외 민간자본 유치 사례와 한국의 벤치마킹 전략'을, 상하이 서울리거병원의 홍성범 원장이 '민간자본 유치 사례'를 각각 발표한다. 국

내 금융투자 전문가인 KTB 프라이빗 에쿼티 손명철 상무는 '의료기관의 국내외 민간자본 유치 전략'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튿날 이어지는 제3세션에선 국내 의료인력의 해외 진출 현황 및 전략에 관한 강연이 마련됐다. 특히 아랍에미리트(UAE)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서울대병원 사례를 소개한다. 서울대병원은 UAE 라스알카이마 지역에 248병상(부지면적 20만㎡) 규모의 SKSH병원을 위탁 운영 중이다. 5년간 1조 원 규모의 운영 예산을 지원받아 종양내과, 심장내과, 신경과, 신경외과, 소아청소년과, 외상·응급의학과, 재활의학과 등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의사 27명, 간호사 71명을 비롯한 국내 의료진 148명이 파견된 상태다. 이와 함께 세브란스병원 김광준 이심추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오는 16~17일 '글로벌 헬스케어 프런티어 2015'를 개최한다. 사진은 지난해 개최한 'GHF 2014' 행사 모습. [사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단장이 세브란스병원의 중국 진출에 따른 국내 의료인력 파견 및 운영 계획을, UAE 다르알쉬파(Dar Al Shifa)병원의 박세진 교정전문의가 개인 차원의 해외 진출 사례를

각각 소개한다. 오후에 진행되는 제4세션에서는 보건의료 해외 진출 정보를 주제로 모니카 권 재외한인간호사회장, 베이징대 국제병원 평란 행정부원장, UAE 경영자문화사인 'LAM'의 라힘 알무탈리 대표가 각각 북미·중국·중동 지역의 직군별 현지 수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영찬 보건산업진흥원장은 "의료 해외 진출 지원법 제정과 함께 한국 의료의 해외 진출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금융·인력 측면에서의 인프라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콘퍼런스 참여는 의료기관 해외 진출 정보서비스 홈페이지(www.kohes.c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등록비는 무료다.

김진구 기자

“한국 농촌서 재미와 휴식을...” 외국인 농촌관광 바람 일으킨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관광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세계 속에서 발전하는 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소풍거리들을 개발한 효과가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2009년 782만 명에서 2014년엔 1420만 명이 한국을 찾았다. 문제는 지역이 편중되어 있다는 것. 외국 관광객의 대다수는 수도권 중심의 소풍 및 고궁 방문을 주로 하고 있어 지방의 농촌으로 유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중심으로 농촌관광 개발에 나서고 있다. 외국인들의 선호 콘텐츠, 수용태세,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농촌관광 11선'을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하여 국내외 여행업계에 정보로 제공하고 현지실현회와 팸투어를 개최하는 등 집중 마케팅을 실시하고 있다. 또 주한 외국인 유학생 서포터즈 운영으로 현지 SNS를 통한 홍보에도 집중하고 있다.

김민식 기자 mskim@gongg.com



농촌관광 콘텐츠 11선

지역	주요 특징
경기 양평 수미마을	· 계절별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 진행 · 주요 관광지인 서울로부터 근거리에 위치
경기 파주 산아무농원(경)	· 외국인 전용 체험프로그램 운영 · 외국인용 테마로 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진행 · 주요 관광지인 서울로부터 근거리에 위치
강원 평창 의아바람마을	· 수려한 자연경관 및 외국인 전용 체험프로그램 운영 · 다수의 외국인 유치 경험으로 외국인 수용태세 우수
충남 아산 외암마을	· 전통가옥이 보존되어 있어 전통경관지인 우수 · 단체 관광객 수용 가능한 식당, 숙소 등 기반시설 우수
경북 고령 개살마을	· 옛 만들기, 한국속백, 대나무물총, 도자기 만들기 등 전통체험프로그램 운영 · 마을대표와 외국인 유치에 대한 의지 높음
경기 이천 돼지보리오면단지	· 돼지 서커스 등 돼지를 테마로 한 특색 있는 프로그램 운영 · 인근 도자기마을, 아울렛 등과 연계성 높음 · 다수의 외국인 유치 경험으로 외국인 수용태세 우수
경남 창원 빛돌배기마을	· 다수의 외국인 유치 경험으로 외국인 수용태세 우수
경북 경주 세심마을	· 경주 내 관광자원과 연계 가능성 높음 · 한복입기, 예절배우기, 전통놀이 등 전통문화를 테마로 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경남 남해 두모마을	· 남해 인근 관광지와의 연계한 관광상품 가능성 높음 · 시가지체현, 스노클링, 선상투어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전남 담양 삼지마을	· 마을 내 고택이 보존되어 있어 고택체험 가능 · 한과, 다도 등 외국인 대상 전통문화 체험 가능
제주 제주 아촌마을	· 마을에 올레길 코스(낙천의자연원로) 들어가 있어 연계 관광상품 개발 가능성 높음 · 갈굴 관련 체험프로그램 운영

8월 17일 전문가 심사 및 선정.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11월 27일, 싱가포르 아맛바운드 여행업체 관계자 8명이 충남 아산 외암마을을 방문해 차지를 이용한 천연염색 체험을 하고 있다.

메르스 위기 딛고 2016년 본격 상품 출시

올해 5월 메르스 사태가 발생해 관광사업이 주춤했지만, 메르스가 진정되면서 9월 이후 농촌관광 상품화를 통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본격화되었다. 2016년 봄상품으로 본격적인 출시를 목표로 국내외 여행업계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한 것.

농림축산식품부는 올 10월의 싱가포르 여행사 대상 현지 설명회(10월 13일) 및 초청 팸투어(11월 25~29일)를 비롯해 중국 현지 여행사 초청 팸투어(10월 27~31일), 대만 여행사 대상 현지 설명회(11월 16~18일) 및 초청 팸투어(12월 9~13일) 등을 진행한 바 있다.

그 결과 체험프로그램 등 테마여행에 관심이 많은 싱가포르 및 대만은 참석 여행사 중 42%가 6개업체에서 2016년 봄 농촌관광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고 중국은 만족도(90점)가 높았으나 가격 면에서 고려할 바가 많아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다.

경기 양평의 수미마을, 파주 산아무농원 등이 우수사례로 꼽힌다. 으뜸촌인 경기 양평 수미마을은 내국인 관광객 중심으로 마을이 운영되어 왔으나, 싱가포르 현지 설명회 당시 소개된 이후, 4개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것에 매력을 느낀 싱가포르 여행사에서 내년 봄 출시 예정인 관광상품 코스에 포함시키기 위해 설명회 개최 다음주에 직접 마을을 찾아와 현장을 확인하기도 했다.

또한, 대표적인 6차산업인증업체인 경기 파주의 산아무 농원은 기존에 주로 대만권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체험프로그램만 운영하여 왔으나, 지속적인 관련 정보제공을 통해 농원에서 제공하는 식사의 우수성을 알게 된 여행사에서

체험 및 식사를 진행하게 되어 객단가가 높아졌고, 농식품부에서 중국인 여행업체 팸투어 개최 및 중국인 대상 11선 안내 책자를 지속적으로 주요 공항 및 호텔에서 제공하는 등의 계기로 농원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증가하게 되었다고 한다.

2016년 농촌관광 콘텐츠 발굴 확대 및 상품화를 본격 추진하고 있는 농림부는 자유여행객 대상 정보제공 강화, 주요 대학과의 양해각서

외국인 유학생을 활용한 홍보는, 한국과 자신들의 출신국에 대한 이해가 높은 주한 외국인 유학생을 서포터즈로 위촉해 활동하게 함으로써 국내 농촌관광을 해외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 하자는 취지의 활동, 중국(30명) 대만(6명) 홍콩(3명) 태국(1명) 필리핀(2명) 말레이시아(1명) 싱가포르(3명) 출신 외국인 유학생 60명을 통해 한국 농촌을 알렸다. 외국인 전용 농촌관광코스 팸투어(총 6회)에 3회 이상 참가하여 관련 후기-

농식품부, 9월 이후부터 외국인 관광객 유치 본격 추진 외국인 유학생 통한 SNS홍보, 해외 여행업체 대상 현지설명회 개최 2016년부터 외국인 전용 농촌 여행상품 출시

(MOU)체결을 통해 주한 외국인 유학생의 농촌관광 활성화 기반 조성 등의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외국인 유치 확대를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농림부는 외국인 관광객을 농촌으로 유치하기 위해 국내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농촌관광 상품화 가능성이 있는 국내와 여행사 27곳과 네트워크를 형성해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관광 설명회, 팸투어 참가자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통해 선호하는 관광 형태와 상품화 가능성이 수용태세 개선사항 등을 파악하고 외국인 유학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서포터즈를 운영하며, 농촌관광 11선 소책자 제작 등을 통해 개별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홍보도 벌이고 있다.

이미지·영상 등을 출신국 주요 SNS 채널에 게시하는 방법을 통해 우리 농촌을 홍보했다.

에어비엔비전 세계 속속의 등록, 검색, 예약이 가능한 커뮤니티 마켓서비스와 협력하여 빅데이터를 활용한 체험마을 속속 서비스의 개선도 유도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외국인 농촌관광지 11개소'에 대한 9~11월 외국인 방문객 수가 크게 늘었다. 메르스 여파로 6~8월 외국인 관광객이 감소하였으나, 외국인 관광객 유치 노력을 본격적으로 실시한 9월부터 방문객 수가 증가(9~11월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했다.



▲ 9월 20일, 한국농촌관광 외국인 유학생 서포터즈가 경기 양평 수미마을에 방문하여 수확한 고구마를 들고보이며, 환하게 웃고 있다.

▲ 11월 1일, 한국농촌관광 외국인 유학생 서포터즈는 6차산업장인 보성 보향다원의 녹차밭을 방문했다.

싱가포르에 한국 농촌의 상품성 알리다

올 10월 싱가포르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개최한 한국농촌관광 설명회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현재 진행 중인 농촌관광 상품화 사업의 큰 틀을 이해할 수 있다.

한국관광공사 싱가포르 지사에서 10월에 열린 이 설명회는 관광공사 직원과 한국전문여행사 사이의 긴담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한국으로 관광객을 보내고 있는 15개 싱가포르 여행사 상품기획 담당자 23명을 대상으로 '한국 농촌관광 11선'을 발표하고 동경상을 소개한 후 여행사와 일대일 면담을 실시했다. 현재 15개 민간여행사를 통해 판매하고 있는 55종의 1일 농촌관광 프로그램에 대해 영문·중문으로 소개해 줄 것을 요청받기도 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다수의 싱가포르 여행사가 5~7일 한국관광프로그램에 1일 정도의 농촌관광프로그램을 포함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봄부터는 실제로 한국여행 프로그램에 농촌관광상품을 포함할 계획인 여행사가 있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 중심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전에 마을을 방문해 상호 협조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싱가포르 관광동향에 관한 정보도 수집해 국내 MICE 사업과 연계한 농촌관광을 검토하고 민간 여행사와 지속적으로 상품을 개발해 갈 예정이다.

싱가포르가 동남아의 선도시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이 성공적으로 열매 맺을 경우, 한국 농촌관광의 동남아 전파가 쉬워질 것으로 농림부와 관광 관계자들은 예상하고 있다.



10월 13일, 농림축산식품부 이경삼 농촌산업과장이 싱가포르 현지에서 열린 농촌관광 설명회에서 18개 여행사 관계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농촌관광을 홍보하고 있다.

으뜸촌
농촌관광사업 등급 결정 평가 4개 부문(경관 및 서비스, 체험프로그램, 숙박, 음식) 모두 1등급인 마을.



뉴스클리프



Special Knowledge <60> 할랄식품 할랄시장을 둘러싼 전 세계의 구애가 뜨거워지고 있다. 무슬림 인구 급증 등에 따라 2010년 661억 달러(세계할랄식품 기준)에 불과하던 할랄식품 시장 규모가 이미 2013년 1조 2920억 달러를 넘어섰고, 2019년엔 2조 5370억 달러로 늘어날 것만 전망까지 나온다. 할랄식품이 된지, 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국내에선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이달 초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현지에서 알아봤다. 두바이=안혜리 기자 ahn-hai-ri@joongang.co.kr

호주 “할랄 시장 공략” 전용 도축장 70곳... 한국 내년 첫 건립



국내 식품업체는 할랄 인증을 받은 라면·김치 등 가공식품을 두바이 등 무슬림 국가에 수출하고 있다. 두바이 카르무 매대에 진열된 한국산 김치(왼쪽 사진). 두바이는 외국인인 많아 슈퍼마켓에 비무슬림을 위한 돼지고기 정육 코너를 따로 운영하고 있다. 안혜리 기자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국제도시답게 두바이는 중산층이 많이 거주하는 초고층 아파트 단지만 두바이 마라나 지역 슈퍼마켓엔 비무슬림을 위한 돼지고기 코너가 따로 있었다. 생 돼지고기는 물론 소시지 등 돼지 부산물도 만든 각종 가공식품을 진열해놓고 있었다. 하지만 다른 식품과 섞이지 않도록 엄격하게 독립된 공간으로 분리돼 있었다. 돼지고기는 ‘할랄’식품이 아닌 ‘하람’식품이기 때문이다.

17억 무슬림에게 ‘신이 허용한’ 식품·의약품·화장품 양·소·닭·나타 등 “신의 이름으로” 기도문 외운 뒤 도축

계 관리해야 한다. 김치나 장 등 자연 발효 과정에서 나오는 알코올이라도 인증기관별로 예탄율이 0.5-1%를 넘으면 할랄로 인정받을 수 없다. 할랄시장 공략을 위해 장류의 알코올 성분 저감 기술개발 등의 연구가 필요할 이유다.

헬빙바람 타고 비무슬림으로 확대

1990년대 세계 인구 중 무슬림은 11억 명(전 세계 인구 중 비중 19.9%)이었지만 지금은 세계 인구 4명 중 1명인 17억 명이 무슬림일 정도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할랄식품시장 규모도 속속 크고 있다. 2009년에도 이미 세계 식품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9%로 만만치 않았지만 매년 급성장해 2019년엔 2조 5370억 달러로 21.2%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헬빙 바람을 타고 할랄식품이 비무슬림으로까지 점차 확대하는 것도 할랄시장이 커지는 또 다른 요인이다. 할랄에는 육류 도축 전 무슬림이 기도문을 외는 등 종교적 절차가 물론 큰 부분을 차지한다. 하지만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해셋) 등 식품 품질과 관련한 기본적인 요건을 준수하기 때문에 비무슬림 사이에서 할랄인증은 종교적 의미보다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이라는 일종의 품질인증서 역할을 하기도 한다. 신앙심이 깊은 무슬림 사이에서는 식품을 선택하는 절대적인 기준, 비무슬림 사이에서는 마치 우리의 유기농 마크처럼 프리미엄 상품으로 대접받는다는 예기다.

단일국가로는 인도네시아가 1970억 달러(2013년 기준)로 가장 큰 시장이지만, 미국이 128억 달러, 프랑스 119억 달러, 독일 99억 달러로 선진국 시장 내의 할랄 식품시장 규모도 만만치 않다. 앞서 언급한 대로 미국과 서유럽에 사는 무슬림 인구에도 헬빙 트렌드로 비무슬림도 할랄식품을 점차 찾고 있기 때문이다. 할랄 초콜릿과 쿠키 제조업체인 네델란드 마르하바는 매출의 25%가 비무슬림 소비자로부터 나온 정도다.

이렇게 광활한 시장을 뚫아 공략한 건 네슬레 등 비무슬림 다국적 기업이다. 네슬레는 1980년대부터 철저한 현지화 전략으로 할랄시장에 진출해 세계 최대 할랄식품 공급업체로 부상했다. 두바이의 카르무 등 대형매장에도 2010년부터 체계적인 할랄 인증을 위해 부속기구로 할랄위원회를 구성했다. 5월 말 현재 134개 업체의 450개 품목이 KMF로

할랄식품 시장의 80%를 장악하고 있다. 아시아에선 말레이시아가 최대 수출국(2013년 98억 달러)이다.

그런가 하면 이들에 비해 후발주자인 호주는 수출 가능한 육류를 도축하는 131개 도축장 중 할랄 전용 도축장을 70개소나 만들 정도로 할랄 시장에 공을 들이고 있다. 우리는 할랄 전용 도축장이 단 1개도 없다.

국제 인증표준 없어 - 기관별로 요건 달라

세계적으로 300여 개의 할랄 인증기구가 있다. 그렇다 보니 인증요건도 이슬람법 해석에 따라 인증기관별로 상이하다. 다시 말하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할랄 인증 표준이 없다는 얘기이고, 할랄식품 관련 시장이 아무리 크더라도 각국별로 각각 다른 기관의 인증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이 시장에 진입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미다.

인증기관의 신뢰도 문제도 있다. 식품업체로서는 할랄 인증을 받기도 어렵지만, 소비자들 사이 인증마크를 신뢰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는 예기다. 300여 개의 인증기구에서 발급한 각각 다른 모양의 인증 마크 가운데 말레이시아 할랄 인증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다. 인증기관이 난립돼 있지 않고 총리실 산하에 자킴(JAKIM)이라는 할랄 인증기관을 두고 있어서다.

인증기관별로 다른 기준이 있지만 매년 갱신해야 하는 할랄 인증 1건에 평균 2000만원 가량의 비용이 든다. 할랄시장 못지 않게 할랄 인증시장 역시 큰 셈이다. UAE가 최근 이 시장 주도권을 잡기 위해 분주하게 뛰고 있다. UAE는 에스마(ESMA·연방표준측량청) 주도로 2014년 자체 할랄식품 인증기준을 정립하고 걸프 6개국(GCC)의 할랄인증기준 통일을 주도하고 있다. 육심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전 세계 57개 무슬림 회원국기구(OIC)의 할랄식품 인증 표준을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국내에도 할랄 인증기구가 있다. 1964년 설립한 국내 유일의 이슬람 선교기구인 국이슬람교중앙회(KMF·Korea Muslim Federation)가 국내 유일의 할랄 인증기관이다. KMF는 1980년대부터 할랄 인증을 시작했고, 2010년부터 체계적인 할랄 인증을 위해 부속기구로 할랄위원회를 구성했다. 5월 말 현재 134개 업체의 450개 품목이 KMF로

부터 인증을 받았다.

하지만 각각이 할랄인증을 자국 정부 주도로 강화하는 추세라 국내 식품업체가 KMF의 할랄인증만으로 할랄시장을 뚫기란 쉽지 않다. 자국이 인정하는 인증기관만 제품을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아예 수입을 제한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는 KMF가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인증기관으로부터 교차 인정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2013년 7월 말레이시아 자질이 인정하는 할랄인증기관으로 등록했고, 올 9월 갱신에 성공했다. 인도네시아 이슬람총교지도자단체가 주도하는 인증기관 MUI(무이)와도 등록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렇게 되면 각각 인증을 따로 받을 필요없이 국내에서 KMF 인증만으로 대신할 수 있어 할랄시장 공략이 비교적 수월해진다. 올 4월 말 현재 외국 인증기관의 인증은 받은 건 14개 업체 264개 품목이 전부였고, 아예 수입 UAE 예즈마로부터 5개 식품업체가 추가로 인증받았다.

한국, 2017년 농식품 수출 목표 15억 달러

할랄시장으로의 농식품 수출액은 지난해 8억 6000만 달러,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년엔 15억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체 농식품 수출 목표가 100억 달러인 15% 수준이다. 이를 위해 할랄인증 비용을 지원하고 있고, 2016년 중에는 할랄 전용 도축장도 세울 계획이다. 또 해외로부터 할랄식품 인증표시 허용을 위해 관련 법령도 재정비했다. 지금까지는 민간기업의 인증 표시를 원칙적으로 금지했었기 때문에 국내 식품회사들이 할랄인증 표시가 붙은 제품을 수출했다가 국내로 역수입했으니, 이런 규제도 풀기로 했다.

돼지고기·알코올을 철저히 배제

할랄이란 아랍어로 ‘신이 허용한 것’이란 의미로, 이슬람 율법상 17억의 무슬림이 먹고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식품·의약품·화장품을 총칭한다. ‘신이 금지한 것’이란 뜻의 하람과 대비되는 말이다.

할랄식품으로 인증받으려면 이슬람법상의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생산하고 처리해야 한다. 예컨대 육류 가운데선 양·소·닭·나타 등이 허용된 고기인데, 소고기와 닭고기로 무조건 다 먹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무슬림이 직접 아랍어로 ‘신의 이름으로’라는 기도문을 외운 뒤 단칼에 정맥을 끊어 도살하는 방법으로 도축된 것만 할랄 식품으로 인정받는다. 한 번의 칼질로 신속히 처리하는 게 간이에 보이기도 하지만 도축동물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의도라고 한다.

잘 알려진 대로 무슬림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기 때문에 돼지 사육장이나 도축장이 함께 있는 곳에서 기르고 도축한 고기는 아무리 이 방 식대로 도축해도 할랄 인증을 받을 수 없다. 심지어 운송과 저장 단계에서 하람식품과 접촉해서도 안 된다. 만약 할랄을 취급하는 식당이라면 도마와 칼을 사용할 때 할랄과 하람이 섞이지 않게 따로 싸야하는 것은 물론 하수구 처리 시설까지 따로 갖춰야 할 정도로 까다롭다.

육류만이 아니다. 채소·과일·곡류 등 비육류성 식품에도 할랄이 적용된다. 돼지 배설물을 비료로 쓴다든가, 술을 마시고 제조 과정에 참여하는 식으로 초기 생산단계에서조차 하람과의 접촉은 금물이다. 가공식품도 마찬가지다. 가령 라면의 닭고기 분말스프에 쓰인 닭고기는 당연히 이슬람법에 따라 도축된 것만 써야 한다.

한가지 더, 모든 제조공정에서 돼지고기뿐 아니라 알코올을 성분도 들어가지 않게 철저하



임시국회만 바라보는 인터넷전문銀

은산분리 완화 은행법안 불발때 지분조정 어려워 의사결정 차질

은산분리(은행과 산업자본의 분리)를 완화하는 내용의 은행법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금융 관련 법안이 정기국회 문턱을 넘지 못함에 따라 12월 임시국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법안 통과 '불발'로 금융개혁 동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여야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대표적 금융법안은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담은 은행법 개정안이다.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은 7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지분 한도를 늘리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최소 자본금을 250억 원으로 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 대해서는 인터넷전문은행 주식보유 한도를 50%까지 허용하는 게 이 법안의 핵심이다.

그러나 야당 반대로 정기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은행법 개정안은 19대 국회에서 폐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되면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내년 2차로 2, 3곳의 사업자에 추가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내주려던 금융당국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진다. 이미 예비인가를 받은 2곳의 인터넷전문은행도 현재의 복잡한 주주 구성을 계속 유지해야 해 의사결정 등에 문제

가 생길 수 있다.

한국카카오뱅크의 경우 대주주는 한국투자금융지주(50%)다. 카카오 측은 지분은 10%에 불과하다. 케이뱅크는 우리은행, 한화생명, 다날이 각각 10%, KT가 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조대형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서 "주주 간 지분 조정이 어려워질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의 효율적인 의사결정과 운영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사공이 너무 많아 배가 산으로 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한편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의 근거를 제공하는 기촉법을 놓고는 여야가 일몰 시한을 2년 6개월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은 상태다. 여야는 기촉법 상시화를 둘러싸고 맞서다가 결국 일몰을 연장하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았다. 이로써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여야가 다시 갈등에 휩싸여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기업구조조정 방안으로는 자율협약과 법정관리만 남게 된다. 당장 내년 본격화할 한계기업 구조조정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 밖에 여야는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현행 연 34.9%에서 연 27.9%로 낮추는 데 합의해 놓은 상태다.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막판에 부산 지역 의원들이 '본사 부산 설치'를 명문화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최종 합의가 미뤄졌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공공기관장 비전도 평가 반영해야”

공공기관경영研 보고서

“단기사업만 평가하는 현행 체계는
기재부의 공공기관 통제력만 강화”

기획재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 평가 시 개별 사업뿐만 아니라 기관장의 ‘비전’을 평가해 중장기적인 혁신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단기 사업만 평가하는 현행 체계로는 공공기관에 대한 기재부의 통제력만 강화시킬 뿐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3일 기재부에 따르면 공공기관경영연구원은 최근 기재부에 제출한 ‘경영평가제도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현행 경영평가제도와 관련해 “기재부가 공공기관을 관리 통제하는 수단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본업보다 평가에 주력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참여했던 한 전문가는 “기관들

이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과도하게 순위 경쟁에 집착하는 경향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연구원은 단기 사업실적 평가뿐만 아니라 기관장의 조직 혁신 노력을 평가하는 한편 평가체계를 단순화해 기관들의 평가 부담을 덜어주는 단기 과제를 제안했다. 예를 들어 현행 ‘전략기획’으로 분류돼 있는 평가항목을 ‘기관 혁신 및 전략기획’으로 바꾸고 현재 2점으로 돼 있는 평가점수도 5점으로 늘리는 것이다.

아울러 연구원은 중기 과제로 정부정책 평가 비중에 한도를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공공기관들이 정부 정책에만 매달려 본연의 업무를 뒷전으로 미루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이다.

한편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와 관련해서는 조직 내부의 단결이 저해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서 연구원은 “간부직에 대한 성과급제 도입 이후 실제 운영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인구 100만 '중부내륙 중심도시' 공공기관·기업 몰려온다

원주시 대형현안사업 박차

민선 6기 원장목 원주시정은 인구 100만 명 중부내륙 중심도시를 향해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읍 들어 여주-원주 수도권전철 건설 확정, 혁신도시 조성 및 공공기관 이전 순조, 기업도시 분양 완판 행진, 남원주 역세권 개발 투자선도지구 지정, 1군지사 본격 이전, 원주권 광역상수도 등 중장기 각종 용수 해결 등 굵직한 현안들을 일다락 지었다. 원장목 시정은 복잡한 현안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각각의 사업들이 상공적인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하는 창의적 발상이 최대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인성메디칼 원주공장 입주 모습.



◇원주 혁신도시 전경.

■ **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화훼특화관광단지는 2019년까지 문막읍 공촌리 일원 277만9,629㎡에 토지보상비, 토목공사비, 부대비용 등 1,700억여원을 들여 화훼유통시설, 상업시설, 화훼R&D 클러스터, 체험단지, 정원형 화훼테마파크, 힐링 캠프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단지 조성 후 시설물 사업을 포함하면 투자비는 1조원을 넘는다. 시는 내년 6월까지 각종 인허가를 추진하고 부지 조성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9월 IBK투자증권(주), 강원도,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개발(주), (주)코리야카분매니지먼트 등과 공동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 **여주~원주 수도권전철 확정**=여주역과 서원주역을 잇는 20.9km 구간에 국비 5,001억원을 들여 2021년 완공 예정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복선 전제 단선'으로 추진됐다. 지난달 19일 수도권 연계 노선인 월곡-관교 구간 예비타당성 조사 최종 발표로 사업 시행이 확정되면서 여주-원주 구간도 건설이 확정됐다. 민선 5기 핵심공약으로 사업을 추진한 원 시장은 완공 때 반드시 시속 230~250km의 고속, 복선 전철로 만들어 경쟁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 **남원주 역세권 개발 투자선도지구 지정**=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중앙선 철도 남원주역 일원인 무실동 837 일원 50만㎡를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일대는 수용인원 7,500명, 3,200세대 규모로 개발된다. 총 사업비는 2,469억

기업도시 분양 경쟁률 '6천대 1' 1조원 투입 화훼특화단지 조성 혁신도시 공공기관 잇따라 이전 시 복잡한 현안 유기적 연계 호평 남원주 역세권·광역상수도 본격화

가운데 10%인 247억원이 시가 부담하고 2,222억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투자한다. 1,400억원의 생산 유발효과와 440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기대되며 9,000명 고용 창출이 예상된다.

■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순조**=기반공사가 마무리 단계인 원주혁신도시에는 이전 대상 13개 공공기관이 차례로 신청서에 동자를 들고 있다. 2007년부터 반곡동 일원 359만6,000㎡에 8,396억원을 투입해 조성 중인 혁신도시에는 3만1,021명이 거주하는 계획도시로, 치약전출출판장이 만종으로 이전하고 해당 부지에 민간 아파트가 신축되면 내년 12월까지 모든 조성공사가 완료된다. 이전 대상 공공기관 13곳 가운데 9곳이 이전을 마쳤고 2곳이 이달 중으로, 2곳은 내년 말까지 원주로 이전한다. 혁신도시는 공공기관들이 운영되는 연간 자금만 80조원에 육박한다.

■ **기업도시 용지 완판 행진**=지정면 가곡리



◇기업도시 의료기기종합지원센터 전경.

와 신령리, 호저면 무장리 일원 529만3,000㎡에 첨단 의료, 연구, 제약, 건강바이오 산업 등을 유치하기 위해 2007년부터 추진된 원주기업도시는 도시 조성비 6,594억원 등 모두 9,437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다. 기업도시에는 1만세대 2만5,000명이 거주할 계획으로 (주)원주기업도시와 원주시가 공동 시행중이다. 2005년 지식기반형으로 시작된 기업도시는 올 6월 지식산업 및 연구용지 등 1단계 조성공사를 마치고 탄력을 받고 있다. 기업도시의 각종 용지 분양은 최고 6,00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보이는 등 기록적인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 **1군지사 이전 본격화**=국방부는 지난달 2일 자료 '육군 제5378부대(제1군수지원사령부) 이전 사업 계획'을 승인, 고시했다. 이로써 2001년 5월 원주역 이전에 따라 중앙선 철도 이용이 불가능해지면서 촉발된 1군지사 이전은 15년 만에 현실화됐다. 1군지사는 호저면 만종리 일원으로 2021년

12월31일까지 이전한다. 세부적으로는 3,151억원을 들여 군수사령부와 예하 5개 부대가 상만종 일원 90만㎡ 부지와 가현동 옛 국군병원 부지 10만㎡으로 옮긴다. 군지사 이전부지는 상업용지 등으로 용도변경돼 사업비 등을 확보했고 북부권 경제 활성화의 구심점이 될 전망이다.

■ **원주권 광역상수도 등 각종 용수 확보**=관부면 신촌천 일대에 488억원을 들여 180만톤 용량의 홍수조절 댐을 건설한다. 시는 또 인구 100만명 시대에 대비해 시민 생활용수 확보를 위해 강원도, 황성군, 수자원공사 황성관리과 4차 협약을 통해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황성댐 물을 시민들의 식수로 확대 공급하고 장안리 취수장을 공급용수로 전환해 황성읍 등 상류지역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한다. 또 장기적으로 중추동 용수를 원주로 끌어오는 대규모 프로젝트도 수자원공사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 **부른일반산업단지 조성**=부른면 노림리 일대 162만㎡에 2,767억원을 투입해 조성중인 부른일반산업단지는 생산 유발효과가 4조6,00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1조4,000억원, 2만2,000명 고용 창출 등이 예상된다. 시는 앞으로 단지 규모를 600만㎡로, 투자비를 1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사업은 특수목적법인인 주도해 많은 우량기업을 유치,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원주시가 중부내륙 거점도시로 발전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원주=유학필기자

/ 춘천 레고랜드 수사 일파만파 /

실제 ‘협상권’을 ‘사업권’으로 행사 땅 우선매수 ‘사기극’ 논란

“일부 사업부지 특정인에게 할값 넘겨지도록 설계”
우선매수권 행사시 30~40억 땅이 4~5배 상승
회사 내부 ‘이익다툼’ 분석 ... 도 관리부실 지적도

속보=도내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춘천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사업의 일부 사업 부지가 특정인에게 할값에 넘겨지도록 설계, ‘사업권 장사’ 논란에 휩싸였다. 레고랜드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본보 지난 11일자 5면 보도)가 촉발된 것도 ‘우선매수권’ 등 회사 내부의 ‘이익 다툼’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도의 감시나 관리 감독도 부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업시행사인 LL개발과 도 등에 따르면 레고랜드 사업에 대한 해외 투자자인 멀린사, 도, LTP코리아와 현대건설 등 주주사는 2013년 10월 레고랜드 춘천 사업의 계약을 체결

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 LL개발과 이 사업을 최초 시작한 LTP코리아 간에 ‘양수도’ 계약이 맺어졌다. 당초 사업 시행사인 LTP코리아가 이후 시행사인 LL개발에게 일종의 사업권을 넘기기로 한 것. 대신 LL개발은 LTP코리아에게 현금 112억원과 레고랜드 테마파크 옆 부대시설인 각각 2만6,000여㎡ 규모의 호텔과 잡어드벤처(직업 체험 놀이시설) 등 소위 돈이 되는 땅을 살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당시 매매의 근거가 됐던 레고랜드 코리아 ‘사업권’이 실제 ‘협상권’에 불과해 계약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논란도 나오고 있다.

수년간 지지부진하던 사업이 2013년 계약 체결로 본격 추진되면서 시행사 내부에서 분쟁이 불거졌다. LTP코리아 전 임원이자 당시 LL개발의 개발 담당대표로 있던 민모씨는 잡어드벤처 사업 부지에 대한 우선매수권은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한 것. 민씨는 특히 지난 3월 LL개발 임시주총에서 잡어드벤처 우선매수권을 자기 자신 앞으로 변경해 의결까지 받으면서 회사 내부의 대립은 극에 달했다. 이 과정에서 이육재 춘천부시장 등 일부 이사가 이를 반대하며 민 대표와 갈등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총 의결 내용대로 민 전 대표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30억~40억원대에 땅을 산 후 팔 경우 4~5배 이상 차익을 얻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최근 도에 우선매수권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류재일기자

오매불망 K, 난 그 사랑에 반댈세



데스크의 눈

오현주 euanoh@
문화부장

그 처음을 선명히 기억한다. K를 향한 지독한 사랑이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한 그때 말이다. 한번 더듬어나 볼까.

1990년대 서태지가 불을 놓은 한국의 가요는 이전과는 확 달랐다. 랩 풍이라고는 “서울 영감 처음 타는 기차놀이~”나 “먹이를 찾아 산 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가 전부인 줄 알았던 세대에게 신세계를 열어준 순간이었다. 여기에 유려한 몸동작으로 띄운 불거리까지 내세운 파워풀한 ‘멜로디, 랩, 댄스’는 한국가요의 ‘3종세트’가 됐다. 때마침 판이 깔린 것도 호재였다. 드라마가 비장하게 개척한 한류의 등에 덱업 업혀서는 세계로, 아니 일단 아시아로 뻗어나갔다. 선배가

띄운 운을 후배 아이들이 받아쳤다. 노래가 좀 떨어지면 어쩌랴. 잘생긴 외모로 우르르 몰려나와 정신만 속 빼놓으면 됐지. 시각적 즐거움, 그게 우리 무기인데.

그래서 뭐가 대접받고 싶었다. 서구의 팝은 맞지만 ‘완전 한국식’인 이 특별한 놀이판을 확실하게 기름할 그것! 코리안 팝? 그래 K팝(K-Pop)이야. 이후 K팝이란 용어는 L TE급으로 언론·정치·경제영역을 관통하는 신조어로 우뚝 섰다. 단순히 한국가요, 그 이상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한결같이 순탄했던 건 아니다. 엉뚱하게 정치·경제적 이유가 발목을 잡기도 했다. 어찌 됐든 훌륭히 정착했다. 2012년 ‘K팝’이 옥스퍼드 사전에 등재되기에 이르렀으니.

그런데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발 빠른 움직임이 드러났다. 온갖 문화상품에 ‘K’라는 성씨(?)를 부여하기 시작한 거다. K드라마, K뮤지컬, K발레, K무용, K클래식, K북, 이 모두를 탈탈 털어 K컬처. 좀 더 지나자 문화상품만이 아니었다. 어디에도 가져다 붙였다. K스마일, K푸드, K투어카드, K익스피리언

스. CT에도 붙여 K문화기술이라고 하고 가장 최근에는 국내 대규모 할인행사인 K세일데이까지 찍었다. ‘닥치고 K’가 돼버린 거다.

한해가 저무는 마당에 되돌아보니 올랜 유난히 K에 대한 사랑이 컸다. 특히 정부가 극진했는데, 연초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한마디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다. “K가 우리 문화의 글로벌경쟁력인 것이 확인됐으니 K를 우리 고유의 브랜드로 정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더랬다. 아심 찬 마스터플랜도 냈다. “글로벌시장서 경쟁하는 서비스산업을 모두 K서비스라 칭하겠노라.” 그러곤 K메드, K투어, K에듀, K디자인 등을 줄줄이 불러내 글로벌서비스화하겠다고 했다.

다 좋다. 잘해보겠다는 거니까. 경쟁력을 갖자는 거니까. 굳이 편지를 걸 생각은 없다. 다만 하나만 짚자. K가 없으면 일이 안되나. 사실 K가 생겨난 건 대한민

K컬처·K세일·K스마일까지 독창성 없는 ‘닥치고 K’ 범람 ‘K’ 붙여야 자긍심 높아지나

국 이외의 국가가 ‘한국의 것’을 가리키고 부르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한국이 앞장서 먼저 K를 부르짖고 하물며 한국 내에서만 통용할 법한, 한국인을 상대로 한 영역에도 K를 달아준다. K스마일은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잘 웃어주는 캠페인이고, K익스피리언스는 서울 송현동 대한항공 호텔부지에 조성하겠다고 한 복합문화허브를 말하는 것이다. 하다못해 지난달 K세일데이 때는 경남 어는 전통시장터에까지 깃발이 나부꼈다. ‘K세일데이 특별판매행사’를 한다고.

처음에는 신선했다. 의미도 있었다. 왜 저러나 싶을 정도로 외국인 이 더욱 열광했으니. 자진해서 K를 불러줬으니. 그런데 이쯤 되면 아니다. 과연 오매불망 목을 매는 K가 한국의 품격과 독창성을 휘날리는 공을 해외에서 제대로 세우고 있긴 한 건가. 한국적인 DNA를 찾아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게 목적이었는데 정말 그런가. K부터 달고 보자는 것이? ‘너무 아픈’ 아니 ‘너무 많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난 그 사랑에 반댈세.

허니문 첫날밤 해외서 노숙할뻔

돈만 챙긴 '먹튀 여행사' 피해 속출
"몰디브 등 싼값 신혼여행" 유인
현지 가보니 호텔비 결제 안돼
항공권 취소로 아예 출국 못하기도

가야 했다. 김 씨는 "가족이나 지인들에겐 창피해서 말하지도 못했다. 나한테 여행상품 예약을 맡겼던 남편에게 미안해 얼굴을 들 수가 없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최근 김 씨처럼 신혼여행을 떠나는 부부를 대상으로 한 사기가 늘고 있다. 비교적 가격이 비싼 신혼여행 상품을 싼값에 내놓고는 여행사가 돈만 챙겨 잠적해 버리는 식이다. 사기 여행사들은 예비부부가 결혼 준비로 바쁘다 보니 항공권, 숙소 예약 등 진행 상황을 꼼꼼하게 챙기지 않는다는 점을 노렸다.

지난달 21일 결혼식을 올린 이하령 씨(27·여)도 비슷한 사기를 당했다. 올 3월부터 신혼여행 계획을 세웠던 이 씨는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N여행사의 광고를 발견했다. 다른 여행사보다 저렴한 데다 여행용 가방도 덤으로 준다는 말에 이 여행사와 바로 계약했다.

하지만 결혼식 다음 날 공항에 도착해 보니 이 씨 이름으로 예약된 항공권은 없었다. 여행사에 전화를 해보니 N여행사 대표는 "절차상

오류가 있었던 것"이라며 편도 티켓을 끊어줬다. 이 씨는 "우선 출발하면 돌아오는 티켓도 바로 끊어서 보내주겠다"고 해 다소 찜찜했지만 일단 여행지로 떠났다.

더 황당한 일은 현지에서 일어났다. 현지 숙소 직원이 이 씨에게 "N여행사 대표가 숙박비를 결제하지 않은 채 잠적해 버려 숙박비를 받지 못했다"며 "숙박료 270만 원을 내지 않으면 돌아갈 수 없다"고 했다. 결국 이 씨는 현지에서 숙박비를 낸 뒤에야 귀국할 수 있었다.

3박 6일짜리 몰디브 여행상품 2명분을 520만 원에 구매한 김모 씨(33·여)도 N여행사에서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 김 씨는 출국 당일 공항에서 탑승 수속을 하려다 자신의 비행기표가 출국 나흘 전에 취소됐다는 얘기를 듣고 망연자실했다.

서울시관광협회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신혼여행 관련 피해 접수는 200여 건. 특히 N여행사 관련 신고가 이 중 44건에 이른다. N여행사 관련 피해자들의 인터넷 카페에는 '여행 당일 N

여행상품 사기 피해를 막으려면

- 계약서 작성
- 기획여행보증보험 가입 여행사 여부 확인
- 업체 명의 계좌로 여행비용 입금
- 항공권 발권 등 진행 상황 수시로 확인

행사와 연락이 되지 않아 결국 여행을 떠나지 못했다' '입금 후 대표가 잠적해 버리는 바람에 다른 여행사와 계약하느라 돈이 두 배로 들었다' 등의 다양한 피해 사례가 올라오고 있다.

피해가 급증하자 경찰도 수사에 나섰다. 서울종로경찰서는 잠적한 N여행사 대표 우모 씨(44·여)를 사기 혐의로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피해 금액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 조사가 끝나는 대로 우 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관광협회 관계자는 "신혼여행은 보통 평생 한 번 떠나기 때문에 더 좋은 시설과 관광 코스를 제공하는 관계로 일반 여행상품보다 비싼 편"이라며 "좀 더 싼 상품을 찾으려는 심리를 노린 사기가 많은 만큼 믿을 수 있는 여행사인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창규 kyu@donga.com·강성휘기자

제주공항 먹통 76분, 관제사는 비상 장비 쓸 줄 몰랐다

주 통신장비 고장 여객기 착륙 못해 '예비·비상 장비 쓸 땐 주 장비 꺼야' 매뉴얼에 없어... 40편 출발 지연 "교신 자동 전환시스템 개발 필요"

공항 관제소와 여객기 사이에 교신이 갑자기 이상을 일으켰다. 제주도와 근처 바다 상공에 여객기 6대가 떠 있는 상태였다. 관제탑은 즉시 예비·비상 통신장비를 가동 시키려 했지만 허사였다. 담당자들이 예비·비상 통신장비 사용법을 제대로 몰라 생긴 일이다. 대응 매뉴얼 자체가 문제였다.

지난 12일 오후 6시50분쯤 제주국제공항에서 비행기 이착륙을 지시하는 관제탑과 여객기 사이에 교신 이상이 생겼다. 여객기 응답이 들리지 않았다. 잡음이 지저직거리는 가운데 웅얼거리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인근 '접근관제소'도 마찬가지였다. 접근관제소는 관제탑보다 더 멀리에서 접근하는 비행기를 통제하는 시설이다.

당시 제주공항에는 1분30초마다 비행기가 이착륙할 예정이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본부 강동원 시설단장은 "자칫 충돌 사고가 날 수 있어 즉시 이착륙을 전면 중단시켰다"고 말했다. 무선 통신장비가 고장 난 상태에서 다른 공항에 유선으로 연락해 여객기들에 이착륙을 금지시켰다. 관제탑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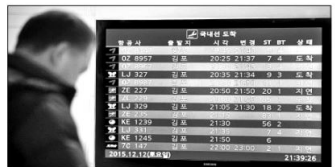
곧바로 항행안전팀에 주 통신장비의 수리를 요청했다. 한편으로 예비 통신장비를 작동시켰지만 주 장비와 마찬가지로 스피커에서는 잡음만 흘러나왔다. 이어 '주 장비가 고장 나면 예비→비상 장비 순서로 교신한다'는 원칙에 비상 통신장비인 휴대용 무전기를 사용했다. 하지만 이 역시 먹통이었다.

교신 이상이 생기고 51분이 흐른 오후 7시 41분에는 예비·비상 장비를 통해 여객기와 교신이 이뤄졌다. 수리를 위해 주 장비의 전원을 끈 순간이었다. 그제야 예비·비상 장비가 먹통이었던 까닭이 밝혀졌다. 주 장비를 비롯해 예비·비상 장비 모두 같은 주파수로 통신하기 때문에 전파 간에 일종의 충돌인 '간섭 현상'이 생겨 통신이 안 됐던 것이다. 관제와 시설관리 요원들은 '주 장비를 꺼야 한다'는 사용법을 몰랐다. 매뉴얼 자체에 그런 내용이 없었다. 매뉴얼은 한국공항공사가 만들어 전국 공항에 비치했다. 제주대 통신공학과 김흥수 교수는 "관제소 통신장비가 고장 나면 비행기에 '교신 주파수를 바꾸라'고 전할 수 없어 예비·비상 장치도 같은 주파수를 쓸 수밖에 없다"며 "그럼에도 주 장비를 꺼야 한다는 내용이 매뉴얼에 없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제주공항에서는 통신선 일부를 교체한 뒤인 오후 8시6분 관제소 통신이 재개됐다. 통신 두절로 인해 여객기 37편의 이착륙이 지연됐고 2편은 회항했다. 이륙하려던 40편 역시 출발이 늦어졌다.

제주국제대 항공운항과 박창희 교수는 "관제소가 통신 이상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여객기 충돌 참사가 벌어질 수 있다"며 "매뉴얼에만 의존하지 말고, 주 통신장비에 이상이 생길 경우 바로 예비 통신장비를 통해 교신이 이뤄지도록 하는 자동 전환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최충일 기자
choi.choongil@joongang.co.kr



12일 관제탑과 여객기 교신 이상으로 제주국제공항 도착편 안내 화면에 '지연'이 표시돼 있다. [뉴스시스]

요코하마 한국총영사관에 “야스쿠니 보복” 배설물 상자

야스쿠니 용의자 재입국 때 화약용 질산칼륨 반입 확인

야스쿠니 신사(神社) 사제 폭탄 폭발 사건과 관련해 괴한이 주일 한국영사관에 배설물 상자를 던지고 달아나는 사건이 벌어졌다.

12일 오전 9시 15분쯤, 요코하마 총영사관 직원이 영사관 주차장에서 가로 35cm, 세로 15cm, 높이 10cm 안팎의 수상한 상자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일본 경찰이 폭발물 처리반을 출동시켰으나, 내용물은 폭발물이 아니라 말린 배설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동물의 배설물인지 인간의 배설물인지는 불분명하다.

상자 위에는 ‘간사하고 독한 흙먼지(姦酷塵)에 의한 야스쿠니 폭파에 대한 보복입니다(靖国爆破への報復です)’라는 손 글씨가 적혀 있었다. ‘간사하고 독한 흙먼지(간코쿠진)’라는 말은 일본어로 ‘한국인(韓國人·간코쿠진)’과 발음이 같다. 보낸 사람 명의로는 ‘재특회(在特会)’였다. 재특회는 ‘재일(在日)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 모임’ 약자로, 헤이트 스피치(증오 발언)를 일삼는 혐한(嫌韓) 단체다.

한편 야스쿠니 사건 용의자 전모(27)씨가 지난 9일 일본에 재입국 하면서 가져온 가루가 질산칼륨이라는 사실도 확인됐다. 질산칼륨은 화약 배합에 쓰이는 물질이다. 마이



요코하마 한국총영사관 제공
12일 일본 요코하마 한국총영사관에 투척된 배설물 상자. 상자에는 ‘간사하고 독한 흙먼지(姦酷塵)에 의한 야스쿠니 폭파에 대한 보복입니다’라는 손 글씨가 적혀 있다. ‘간사하고 독한 흙먼지’라는 말은 일본어로 ‘한국인(간코쿠진)’과 발음이 같다.

니치·요미우리 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전씨는 재입국 당시 김포공항에서 하네다공항으로 디지털 타이머, 배터리, 수상한 가루를 부쳤다. 일본 과학수사연구소 검사 결과, 이 가루는 질산칼륨으로 확인됐다. 일본 언론은 지난달 23일 야스쿠니 신사 화장실 폭발물 잔해에서 나온 가루도 질산칼륨이었다고 전했다.

전씨의 얼굴과 실명이 일본 언론에 공개된 데 대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일본 경찰이(언론에) 얼굴 사진을 제공한 게 아니라 언론이 멋대로 쓴 것 아니냐. 일본 정부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책임을 부인했다. 도쿄=김수혜 특파원